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14.96 (-9.52)	824.11 (+11.9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160 (-0.046)	1294.30 (+16.00)

[韓 초거대 AI 현주소는] '환각 현상' 등 단점개선 분주 한국형 '챗GPT' 총력 03



## 금값 된 '金'... 2000달러 돌파 불안한 투자자 자금피난처 부상

(은스당)

SVB 사태 이어 은행권 부실 전염 4월말 금 선물 온스당 2014.90弗 작년 러-우크라 전쟁 후 최대치 국내 금시장도 사상 최고가 기록 금 현물 1g 당 가격 8만3735원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걷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독일 도이치은행까지 금융위기가 전염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까지 금융위기를 겪자 투자자들은 피난처로 '금'을 선택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다.

한돈(3.75g) 매수가격은 35만3500원으로 지난 20일 역대 최고치(36만2000원)보다 1만원 하락했다.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설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SVB는뱅크런이 일어나자 파산했고, 이후 CS 역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인수하면서 사실상 파산했다.

지난 24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유럽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간밤에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장중 14% 나 하락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험이 커져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고,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0.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0.25%p, 유럽중앙은행(ECB)은 0.5%p 등이다.

금리인상기가 지속되면서 금값 상승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금값은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단기간 급등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SVB 사태 이후 은행권 부실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하면서 국제 금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만큼 향후 귀금속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 전경. 1600t 콜리엇 크레인들이 선박 구조물을 나르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 야드에 딱찬 선박 건조물량 조선업계 수주 호황 실감나

르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8년 만에 현장 모습 미디어 공개 3년치 일감 확보로 직원들 구슬땀 대표적 고부가가치 LNG선 최다 연료비 절감 자체 기술력에 자부심

승선한 선박의 너비는 46.4m고, 길이는 299m였다. 숫자만으로는 그 크기가 가늠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만수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매니저는 "63빌딩(249.6m)보다 50m 더 길다"고 덧붙혔다.

이날 승선한 LNG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2020년 하반기 수주하고 2021년 12월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었다. LNG운반선은 다른 선종보다 복잡한 설계 구조로 되어 있어 건조 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일반 컨테이너선이 건조부터 인도까지 9개월이 소요된다면, LNG선은 건조부터 인도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수많은 선박 중 LNG운반선을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선종이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건조 능력은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글로벌 LNG선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197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건조한 LNG선만 95척에 달하고, 현재 전체 수주잔량(155척) 중 LNG선(53척) 비중은 약 34%다.

LNG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알려져 있으며, 엔진 부분만 따지면 현재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 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으로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약 2만2000마력의 이중연료(DF)엔진 2기가 탑재돼 있었다. 이중연료 엔진은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고 있으며, 기존 엔진 대비 이익률도 3~5%p 높다.

이 매니저는 "LNG선 이윤도 많이 남고, 친환경 선박으로 선주들이 많이 찾는다"며 "17만4000m³ 이상 LNG운반선 가격은 1척당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원)이고, 현대중공업은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현장에 들어서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글귀가 기자단을 반겨주었다. 'HD현대'가 시끄러운 용접 소리와 중장비들의 엔진 소리가 가득한 울산조선소의 모습을 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방진 마스크 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모습과 공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음들, 바닷바람과 어우러진 시름한 쇠냄새까지. 몇 년간은 느껴볼 수 없었던 조선소의 활력이 현장에서 그대로 전해져 왔다.

현대중공업 야드 전체에서 건조 중인 배는 47척으로 10여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최근 2년간 올린 수주 물량만으로도 현대중공업은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2018년 입사한 한 HD현대 관계자는 "야드(현장)에 선박 건조물량이 꽉 차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감탄했다.

◆친환경 연료 선박·엔진 시장 주도하는 현대중공업

기자는 이날 바다에서 가벼운 등산을 했다. 전체 공정의 87%를 끝낸 17만 4000m³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오르는 승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14층 높이(35.5m) 선박을 오르며 선박의 웅장함을 체험했다.

## 제2금융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6조

비은행권 부실 확대 경고등 익스포져 사상 최대수준 증가 여전사 4.3배, 보험사 3배 ↑

지난달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선 금액은 440억원.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이 줄고 있어 공사비를 못 받아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

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린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일시적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은행 부동산PF 익스포져 115.5조원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는 115조5000억원 규모로 대출이 91조2000억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확대된 이유는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7년말 부동산PF 익스포져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업권별 익스포져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여전사 432.6, 저축은행 249.8, 보험사 204.8, 증권사 167로 집계됐다. 5년전과 비교해 익스포져가 각각 4.3배, 2.5배, 3배, 1.7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말 8.2%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2%에서 2.4%, 여전사 0.5%에서 1.1%, 보험사는 0.1%에서 0.4%로 늘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문재인 전 대통령, 4·3 추념일 제주 방문해 참배 예정
- ▲ 야권, 굴욕외교 규탄대회 참석... "국익, 국민이 지켜야" /사진 뉴시스

- ▲ 한동훈 총선 차출론 '술술'... 대야 투쟁 '선봉장'
- ▲ 이재명, 안중근 의사 113주기에 "선열 빛기 부끄러워"



- ▲ 홍준표, '트럼프·이재명' 싸잡아 비판... "한미가 겪는 홍역" /사진 뉴시스
- ▲ 신임 국수본부장에 우중수 경기남부청장 유력

# 中 ‘생산메카’ 텐진 찾은 JY... ‘시진핑 키드’와 협력 논의

〈천민열 텐진시 서기〉

이재용 회장 CDF 참석차 방중 삼성 계열사 거점 텐진시 찾아 현장 점검·임직원들과 간담회 美 압박 속 공급망 안정화 모색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오랜만에 중국 사업장을 방문해 중요성을 확인했다. 3년 만에 중국을 찾은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삼성 계열사들의 생산 메카인 텐진시로 향했다.

이곳에는 삼성전기 MLCC·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 공장, 삼성SDI 스마트 기기·전기차 2차전지 생산 공장이 있다.

이 회장은 ‘시진핑 키드’로 불리는 천민열 텐진시 서기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중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삼성전기 텐진공장 MLCC 라인 점검

26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4일 중국 텐진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곳은 차량용 전장(전자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회장은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텐진 지역 계열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4일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회장이 중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3년여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개발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 이에 앞서 현지 사업장이 있는 텐진시를 찾아 천민열 텐진시 서기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텐진은 삼성전기 MLCC 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모듈 생산 공장, 삼성SDI 2차전지 생산 기지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삼성전기 텐진 MLCC 생산 라인은 글로벌 시장에 IT와 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다. 2018년 설립했다.

MLCC는 전자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류 흐름을 조절하고 전자와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이다.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에도 1만개에서 2만개가 탑재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삼성전기는 ADAS와 ABS와 워터레인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전장용 MLCC를 생산한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2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선두에서 혁신을 이끌어 가자.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부산 사업장을 첨단 MLCC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화 지역으로, 텐진 공장은 전장용 MLCC 주력 생산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공장에 방문하기 전 삼성

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텐진 지역 주재원과 중국 법인장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왔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과 한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제약을 받을 때도, 텐진을 비롯한 중국 주재원과 임직원들의 공급망 차질 최소화에 주력해왔다.

## ◆ 텐진시 서기·글로벌 CEO와 협력 논의

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CDF에 참여해 글로벌 경영 현안과 미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와 BMW 올리버 집세 회장 등 오피니

언 리더들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기 사업장 현장을 점검한 이후에는 천민열 텐진시 서기를 만났다. 세계에서는 ‘시진핑 키드’로 불리는 천 서기와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 서기는 저장성 출신으로 2002~2007년 저장성 당 서기를 지낸 시 주석의 눈에 들어 핵심 측근으로 성장했다. 2018년 인구 30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충칭시 당 서기로 발탁됐고, 지난해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뒤 텐진시 당 서기로 부임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철 삼성전기·중국전략협력실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와 텐진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25~27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台)에서 개막한 ‘경제 회복 :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중국발전 고위급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발전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세계적인 기업 고위 인사 100여 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포럼은 2000년 창설됐으며,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하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이다. 이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것은 3년 만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프랜차이즈 노동법 준수 여부 단속

고용부, 가맹점 2500곳 현장점검 일한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노동자 임금을 때 먹거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전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7~31일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고용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

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도 적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다수가 기본적인 노무관리 관련 인식이 부족해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관련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준수 등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상반기 만기 앞둔 유동화증권 34조 ‘고비’

>> 1면 ‘제2금융권, 부동산PF...’서 계속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수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대출의 상환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 비중이 많은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보험사가 38.1%(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4.7%, 여전사가 23.6%, 저축은행이 9.2% 순이었다.

## ◆ 부동산 PF, 올 상반기가 고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고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보면 건설사 등이 올해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유동화증권 만기는 34조원, 이 가운데 1분기에만 약 20조원이 몰려 있다.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만기가 예정된 부동산 PF 가운데 약 30%는 담보없이 자금을 조달할 브릿지론으로 추정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땅 매입작업)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시행사가 주택개발을 위해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금융회사가 본PF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발생한다.

## 일손 부족에 대대적 인력 충원 예고

>> 1면 ‘야드에 꽂힌 선박...’서 계속

해의 선주자들이 현대중공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술력이다. 대형 선박의 경우 하루 연료비 1억원 가량 소요된다. 고 볼 때, 현대중공업은 연료비를 10~15%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 호황 속 드리운 ‘인력난’...채용이 답이다

다만 이러한 수주 호황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감은 넘치는데 일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조선업이 인력 문제가 봉착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를 바꿔 인력 확보 나서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직시했다.

이어 “현재 HD현대 조선계열 3사(현

부동산업계관계자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감수해 서라도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시공사와 금융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2019년 3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55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은 손실부담을 조정해, NPL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와 협력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800명 정도 채용한 상태”라며 “(800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2800명까지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내국인 채용도 이어갈 전망이다.

한 부회장은 이날 “올해 직영으로 200~3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앞으로 채용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말로 채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양성운 기자 ysw@

# ‘환각 현상’ 등 단점개선 분주… 한국형 ‘챗GPT’ 선보인다

챗GPT를 포함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이 급속히 해결해야 할 속제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을 포함한 거짓말, 편향성, 일관성 결여, 세이프티(안정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초거대 AI 개발사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와 유사한 기능을 도입한 신제품을 빠른 시일 내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챗GPT와 경쟁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필터링 기능과 강화학습, 센싱 기능 등을 통해 챗GPT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파악됐다.

### ◆“거짓말을 못하게 해라”

메트로경제가 네이버, LG그룹, SK텔레콤, KT 등을 대상으로 지금 활동 중인 초거대 AI 기능 중 가장 급속히 해결해야 할 것 중 첫번째가 거짓말이었다. 그 중에서도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꼽았다.

### 거짓말, 편향성 등 단점 지적 국내 개발사들, 한계 극복 나서 ‘챗GPT’ 유사·대응 제품 출시

LG그룹 개발자는 26일 “초거대 AI는 거짓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틀린 정보를 그럴 듯 하게 표현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심하다. 팩트를 포장하는 것 보다는 없는 사실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를 그럴 듯 하게 설명한다”며 “챗GPT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SKT 한 임원은 “AI가 사실적인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하면서 결국 사실적인 거짓말을 하게 된다”며 “페이스북에서 논문 AI를 개발했는데, AI가 사실적인 거짓말을 하는 문제가 드러나 결국 1주일만에 폐기가 됐다”고 말했다.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KT 임원은 “초거대 AI는 가짜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지 쉽지 않은 문제다. 최근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100%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는 사람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답변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창의력이 떨어진다

초거대 AI에서는 편향성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KT 임원은 “초거대 AI는 특정 계층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다”며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향성 데이터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초거대 AI의 또 다른 단점은 일관성이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SKT 임원은 “초거대 AI는 메모리가 없어 일관성 없는 단점이 있다.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다음 번에는 “안 좋아한다” 하는 등 변화가 심하다”며 “콘텐츠와 끈끈한 연결고리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이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지난달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데뷰’ 콘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있다. 이는 초거대 AI와 욕설, 성적인 내용, 범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SKT 임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AI인 ‘데이’는 지난 2016년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10만건이 넘는 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반인륜적 트윗을 잇따라 내보내 서비스가 중단됐다. 챗봇 ‘이루다’도 성적 발언, 성차별,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생겨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것이 세이프티 이슈로 문제 자체가 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휴먼 여리지와 어린이가 실물이 거의 차이가 없는 등 초상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챗GPT 단점을 개선하라

국내 개발사들은 이 같은 초거대 A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 강화학습을 시키고 센싱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 LG ‘엑사원’에 센싱 기술 구현 네이버 AI 윤리원칙 필터 개발 KT 팩트체크 기술로 강화학습

KT는 초거대 AI ‘믿음’에 팩트 체크 기술을 적용하고 초거대 AI에 강화학습을 시키고 있다.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AI에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KT 임원은 “어떤 답변이 문제가 되는지 조사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에 대한 분류기를 만들어 이를 필터링하고 있다”며 “또한 AI에 강화학습을 시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T도 초거대 AI ‘에이닷’에 세이프티 필터를 적용해 욕설, 성적인 내용 등 대화를 걸러주고 있다.

SKT 임원은 “편향된 대화는 데이터를 가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따라서 미리 문제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걸러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LG그룹은 초거대 AI인 ‘엑사원’에 센싱 기술 구현을 통해 편향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했을 때 정보를 만든 사람의 편향성이 들어갈 경향이 크다”며 “데이터 확보부터 학습, 데이터 처리를 한 후 AI가 다시 사람에게 보여주는 전 과정마다 기술이 필요하다.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인 퓨어 데이터를 학습했음에도 편향성이나 혐오 표현이 나타날 수 있어 센싱 기능을 통해 이를 바로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AI 윤리원칙을 준수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AI 필터’를 개발해 ‘글로벌 스튜디오’ 등에 탑재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필터 기능은 글로벌 스튜디오를 통해 생성된 서비스 앱에서 욕설 등 부적절한 결과물이 출력되는 것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라며 “글로벌 스튜디오 이용자는 AI 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사원 /LG

한편 국내 개발업체들은 챗GPT와 유사한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어 특화 모델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챗GPT와 정면 승부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KT 임원은 “올해 내 챗 GPT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회사들이 챗GPT 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LG그룹도 챗GPT와 유사한 기능으

로 ‘전문가 AI’, 각 영역별로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AI·화학·바이오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도울 수 있는 AI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SKT는 에이닷을 챗GPT글로벌 서비스로 키워 챗GPT에 대항하겠다는 포부이다.

SKT는 최근 에이닷에 이용자와 대화한 내용 중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장기기억’ 기술과, 이미지와 한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미지 리트리벌’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로컬리티를 설명 가능한 한국어 기반 10억장의 이미지와 한글 텍스트 쌍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초거대 멀티모달 AI를 학습시켰다.

네이버도 상반기 중 AI 챗봇을 탑재한 한국형 챗GPT인 ‘서치GPT’를 출시할 계획이며, 카카오도 올해 3분기 내에 챗GPT에 대응하는 AI 챗봇 ‘코챗GPT’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또 오르는 치킨값, '서민음식' 옛말... 가성비 찾아 마트 간다

교촌, 내달 '허니콤보' 3000원 인상  
버거킹, 일부 메뉴가격 평균 2% ↑  
도미노피자·피자스쿨 등 잇따라 올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4월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품목별로 500~3000원 사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프랜차이즈 치킨 3만원, 피자 4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지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치킨=서민 먹거리'라는 공식은 옛말이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다음 달 3일부터 품목별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블랙시크릿' 등 일부 신제품 가격은 동결한다.

한마리 메뉴는 3000원, 반마리·사이드 메뉴는 500~2500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촌치킨 시그니처 메뉴인 '허니콤보'는 기존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다. 교촌 오리지날(한 마리)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이 된다.

###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배달료가 3000~50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할 때 3만 원을 내는 셈이다. bhc와 BBQ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만, 업계 1위 교촌이 치킨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타 치킨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촌 측은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며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촌에프앤비 수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8억원으로 2021년

(410억원) 대비 78% 감소했다. 경쟁사인 bhc와 BBQ 영업이익률은 20~30%에 달하는 데 비해 교촌에프앤비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또 교촌 본사는 2014년부터 주요 원자재의 가맹점 납품가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에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근 10년 만에 가맹점 납품 가격을 올려받기로 결정했다.

### ◆버거·피자도 일제히 인상

앞서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

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버거킹은 이달 10일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 올렸다. 맘스터치는 이달 버거류를 평균 5.7% 올렸고, 맥도날드는 지난달 일부 메뉴를 평균 5.4% 올렸다. 노브랜드버거와 롯데리아도 지난달 가격을 평균 4.8%, 5.1% 인상했다.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지난해부터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도미노피자가 가격을 올리자 3월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도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다. 도미노피자는 지난해 8월 2차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여기에 피자스쿨, 피자알블로, 오구살피자 등 중소 피자 브랜드들도 동참했다.

지난해 가격을 올린 바 있는 미스터피자는 지난달 또 한번 피자과 사이드 메뉴 가격을 4~5% 인상했다. 일부 메뉴 가격은 40%까지도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상으로 미스터피자의 '킹 브레드 쉬림프 골드' 라지 사이즈 가격은 3만7900원에서 3만9500원으로, 피자한판 가격이 4만원에 육박한다.

제품 가격에 더해 배달료까지 오르면 서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제품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주부 A(43) 씨는 "브랜드 피자 가격이 말도 안되게 오르면서 주로 대형마트 푸드코트를 이용하거나 냉동피자를 구매한다"며 "가격은 오르는데 품질과 맛은 크게 좋은 지 모르겠다. 오히려 냉동피자가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브랜드 대신 가성비... 마트 PB·냉동 피자 선호

2017년 2조원 정도였던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000억원까지 시장이 축소됐다.

이를 기회삼아 대형마트들은 가성비 피자를 선보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자체 브랜드 냉동피자인 '시그니처 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매장에서 직접 구워 판매하는 대형 피자를 판매한다.

온·오프라인 시장 리서치 기관 칸타에 따르면 냉동피자 시장 규모는 2019년 715억원에서 2021년 1200억원을 넘어 서며 프랜차이즈 피자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썬오투기는 지난 2016년 국내 냉동피자 시장에 진출한 이후 '떠먹는 컵피자', '사각피자', 'UNO피자', '크러스트 피자' '화덕style 피자'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말 냉동피자 시장에 진출한 풀무원도 엄청난 속도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9.3%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2020년 13.8%에서 2021년 23.5%까지 뛰어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문점에 가까운 품질을 구현한 냉동피자 제품들이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억?! 소리는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더욱 커진 역대 투자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기업 성공의 길에 경상남도가 함께 합니다!

카카오톡 채팅상담 (QR코드 접속 또는 '경남투자' 검색)

지원금이 확! 커졌네~!

## 전기·가스요금 동시 오를듯 물가고려 최소한 인상 유력

산업부·기재부, 2분기 새기준 조율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변동성이 그대로이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민 체감이 큰 만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당국과 물가당국의 조율을 거쳐 최소한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6월 가스요금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요금기준을 재설정하는데, 내달 동시에 요금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지난달 산업부에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토대로 새로운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료비 회수율이 60~70% 수준으로 적자와 미수급이 증가하는 점은 감안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민 체감이 높은 에너지비용이 한꺼번에 올리기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새로운 요금인이 4월1

일부터 적용된다면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새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남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도 그대로 둘 수 없는 형국이다. 한전 영업손실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6.7% 급증했다.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00%를 기록해 영업부실이 심화한 상태다.

에너지당국은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그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규모를 감안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초반 정도이고 가스는 60% 정도다.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적자와 미수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인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미래에서 온 리퀘스트

2030부산엑스포장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2023년으로 불시착한 찬혁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2030부산엑스포가 개최되어야 한다!

찬혁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070-7107-2030 | [www.2030busanexporequest.com](http://www.2030busanexporequest.com)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野 ‘추가 입법’ 압박

## 양곡관리법 논란

여야, 총선 1년 앞두고 끝장대치尹 대통령, 지난해 반대 의사 밝혀‘강행→거부권’ 악순환 반복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되면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는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약속 기자회견에서 “(쌀)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엔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이 되는 법안들까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치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의요구로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도 여야 입장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의 부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도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대치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전국 9개 선거구 130만명 투표 ‘전주시을·창녕군수’ 이목집중

### 4·5 재보궐선거

31일부터 사전투표 돌입 울산교육감, 선거인 최대규모

오는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르며, 130여만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격으로 보고 지원 사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인수가 130만9677명(인구수 150만2971명 가운데 84.88%)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단체장·지방의원 선거구가 중복되는 경우 지방의원 선거인 수는 제외한 숫자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9곳에서 치른다. 먼저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경북 포항시 나)을 포함해 총 3곳에서 치른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광역시),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 제4·경남 창녕군 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충북 청주시 나)으로 모두 6곳에서 치른다.

선거인 수로만 봤을 때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인 수는 93만7216명이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포항시 나 기초의원 선거다. 선거인 수는 1만8179명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곳



4·5 재보궐선거를 앞둔 24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 벽보가 걸려 있다.

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잘못으로 선거를 치르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꼽을 수 있다. 양당 모두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창녕군수 보궐선거, 민주당의 경우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각각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먼저,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창녕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민주당 성기욱 후보,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재·하강돈·한정우 후보(기호순) 등 모두 7명이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공천 결정을 내리면서 지원 유세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을 받게 돼 치른다. 민주당 지도부도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 취지에 따라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임정엽·김광중·안해욱·김호서 후보(기호순) 등 모두 6명이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23일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지역 발전과 함께 소속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권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발송 안내문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민주당, 극성 지지층 집단행동 ‘홍역’

체포동의안 표결 후 계파 갈등 고조 색출작업, 현장시위 등 공격 극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극성 지지층 중심의 집단 행동이 당 내부 갈등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측은 메시지를 내며 극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당부했으나,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친이재명계와 이들을 당내 민주주의 저해 요소로 여기는 비이재명계의 간극은 명확하다.

이른바 개팔(개혁의팔),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은 지난 24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화성시 지역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반대하며 그를 이 대표를 배신한 인물로 규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확인되자 극성 지지층의 비이재명계를 향한 수박(비이재명계) 색출 작업과 공격은 극심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이제 개팔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메시지가 나온 지 약 5시간 만에 SNS에 글을 올려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 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세 세력과 싸워달라”고 설득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와 최후의 2인으로 선거를 치른 박용진 의원의 강북구 지역사무실에도 지난 25일 1인 시위자가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피켓을 든 이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런 행동이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가. 흑시 자기만

족적인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피켓엔 ‘당신의 공격 대상은 검찰총장이지 당 대표나 열성 당원이 아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더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박 의원은 24일엔 이원욱 의원을 향한 극성 지지층의 시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팔과 헤어질 결심이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용기 내자.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극성 지지자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허구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된다”면서 “(개팔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극성 지지층과 비이재명계의 내홍을 우려하며 당이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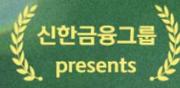
우원식, 김상희, 정성호,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단결과 총선 승리”라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간 강경 시위자에게 시민들이 내려오라고 소리친 것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이번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엔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을 제안한 10명의 민주당 4선 의원이 참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숨을 곳도 도움을 청할 어른도 없이 홀로 악몽 같은 날들을 지내온 10살 현지(가명)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마음 속 그늘을 걷어내고  
함박웃음을 짓기 시작한 현지의 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 꽃들이 예쁜들, 너보다 예뻐가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실제 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행복해진 아이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선한 세상 이야기

###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사업 ]

신한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피해아동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 ‘애플페이’ 카드업계 반응 미지근... 수수료 부담 확대 우려

아이폰 사용자 편의성은 높지만 결제시장 새로운 판로는 아니야 애플, 제휴사 수수료 0.15% 부과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지속 줄어 업계, 수수료 재산정 논의 목소리



애플페이 서비스가 공식 출범했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뉴시스

국내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상륙했지만 카드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향후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신시장이 열린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배타적 사용권이 사라졌다. 다른 카드사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아이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로는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 지적이다. 애플은 제휴 카드사에 페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0.15%를 부과한다. 현재 카드사들이 받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0.5~1.5%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이 책정한

별도의 결제 수수료는 총수수료에 10~30%에 해당한다.

애플페이의 등장인 결제시장의 새로운 판로가 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카드사들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앱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전환을 시도했다. 애플페이는 자사 페이앱의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삼성페이 또한 별도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삼성페이가 가입자는 1400만명이다. 지급결제시장 점유율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메기’인 셈이다. 삼성페이의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비씨)의 당기순이익은 2조606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수익성 약화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은 2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 영업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는 ‘판매관리비’ 또한 1387억원 증가했다. 당초 카드사의 본업인 수수료 장사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페이 사용을 위해 가맹점과 결제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소비자 및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페이가 유료화되더라도 수수료는 모두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07년 결제 금액의 3.6%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 1.5%까지 떨어졌다. 카드업계가 수수료 재산정 논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카드수수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논의는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최근 디지털 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지만 본업인 결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당국, 금융권 ‘거수기’ 지적 무색

# 4대금융지주, 사외이사 72% 재선임 성공

선임된 25명 중 18명 현직 사외이사 당국, 자체 개혁 미흡 제도개선 준비

국내 4대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의 주주총회에서 총 18명의 사외이사가 재선임에 성공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진에 대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지배구조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이사회 개편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한금융 주총을 시작으로 24일에는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각각 정기주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부 통제에 실패한 전임 회장들은 물러나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그러나 견제·감시를 제대로 못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은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연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 25명 중 18명은 현직 사외이사다. 약 72%가 연임한 셈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8명 전원이 연임이었는데 모두 통과됐다. 현 사외이사인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봉·윤재원 사외이사가 모두 유임했다. KB금융은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 중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3인에 대한 재선임도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입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우리금융에서는 윤수영 전 키움자산



4대금융 본사 전경. /각사

운용 대표이사,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사는 신규 선임으로 2년, 정찬형 이사는 재선임으로 1년 임기를 수행한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이들의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적극 내세웠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비판하며 연임 후보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 역시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사외이사들이 CEO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법적 처벌 과정에 놓인 CEO의 연임을 지지함으로써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금융당국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소 관계를 이용해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이사회 정례회의 추진

그럼에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대부분 연임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은 굽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주총을 통한

자체적인 사외이사 교체나 역할 강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될 경우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외이사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 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지주 이사회 정례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여러 논의를 준비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새로 취임하신 CEO 및 이사회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학계 연구 결과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사회와 면담해 온 유럽 등 금융 강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일괄적으로 교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보통 2~3년의 임기를 둔다는 걸 생각할 때 한번에 과반 이상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사외이사 운영을 교체 비율 등 산술적으로만 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4대연금·카드대금 계좌 변경하면 경품”

우리은행, 6월 말까지 이벤트 진행 해당고객 응모시 최대 4만원 캐시백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령 고객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변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4대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이벤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연금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4만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고 이벤트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인신용카드(우리카드 제외) 결제

계좌 변경 이벤트는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 증정일까지 카드결제대금 1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변경 카드사당 2만원씩 최대 4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되며 이벤트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IBK비즈니스 컴퍼니카드’ 10만좌 돌파

IBK기업銀, 기업고객 비대면 카드 업계 최초 세금납부도 포인트 적립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의 비대면 카드발급을 위해 출시한 ‘IBK비즈니스 컴퍼니카드’가 지난 21일 발급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용 ‘IBK비즈니스카드’는 업계 최초로 세금(국세, 4대보험) 납부 금액에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연회비가 저렴해 기업카드지만 개인카드 이상의 알짜 혜택을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모바일 앱(App) ‘i-ONE뱅크(기업)’ 또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 ‘IBK비즈니스카드’를 신청하면 실시간 자동심사를 통해 발급가능 여부와 한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결제계좌가 없는 사업자도 본인인증 한번으로 계좌개설부터 카드 발급 신청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용 ‘IBK컴퍼니카드’는 전월실적조건 없는 무제한 포인트 적립, 연회비 면제, 이용내역 앱 무료알림 등 심플하지만 강한 서비스를 담고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IBK컴퍼니카드’를 신청하면 365일 100% 비대면 거래로 기업카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지정카드 발급 즉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에 등록이 가능해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디지털채널 판매를 위해 출시한 카드가 고객분들의 성원 덕분에 기업카드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에 성공했다”며 “하반기에는 법인사업자의 최초신규발급도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시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착한가격에 뛰어난 성능, 공간성 ‘3박자’... 첫 차로 딱이네



##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전고 1560mm, 축간거리 2700mm  
낮지만 긴 길이로 공간성 갖춰

GM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 집약  
신형 1.2L E-터보 프라임 엔진  
외부소음 잡고, 실내 정숙성 ↑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출시한 차량 중 ‘최고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이다.

통상적으로 경쟁 모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상품을 보면 ‘싼 게 비지떡이다’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하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단순히 가격이 착하다는 것을 넘어 성능 면에서도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 한국지엠이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내놓은 차라는 느낌이 강

했다. 한국지엠이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행사를 통해 차량의 장단점을 확인했다. 시승은 킨텍스에서 파주까지 35km 구간을 주행하며 도심과 고속구간을 두루 경험했다. 시승차량은 중간 트림인 ACTIV를 선택했다.

우선 첫 인상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접목한 CUV 모델인 만큼 날렵하게 잘빠졌다는 느낌을

준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전고(높이)는 1560mm로, 비슷한 크기의 현대자동차 소형 SUV ‘디올 뉴 코나’(1580mm)보다 30mm 낮았다. 높이는 낮지만, 전장은 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축간거리는 2700mm로 경쟁차종인 코나와 기아 셀토스보다 길고, 심지어 쉐보레 브랜드 내 상위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긴 길이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실내 공간성도 뛰어났다. 2열은 177cm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어 답답하지 않았다.

전면에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강인한 인상을 강조한다. 검은색 유광(블랙 하이글로시)과 크롬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웃도어에 특화된 ACT IV 트림은 그릴이 범퍼 하단부까지 연장돼 더 강렬한 느낌을 전해준다.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다. GM이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을 집약한 신형 1.2L E-터보 프라임 엔진은 예상보다 뛰어난 힘을 발휘했다. 제원상 최고출력은 139마력, 최대토크 22.4kg·m을 제공한다. 엔진은 GM이 오랜 기간 부익 등 여러 차종을 통해 검증한 GEN III 6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린다.

특히 고속구간에서 가속 반응은 운전자를 놀라게 했다. 차량이 없는 고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빠르게 치고 나갔다. 특히 고속 주행에도 엔진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2.0리터 가솔린 엔진이 아닌 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 기능을 탑재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반대 특성을 가진 음파로 상쇄시켜 실내 정숙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에 충신했다. 자체 내비게이션은 탑재하지 않았지만 1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6개 에어백과 힐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을 지원하는 차체 자세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스탑&go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한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면 차선을 유지하지만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크루즈 컨트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GM의 슈퍼크루즈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복합연비는 L당 12.3km로 준수하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 IV 2681만원, RS 2739만원이다. 생애 첫 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꼭 한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경험한 뒤 결정하길 추천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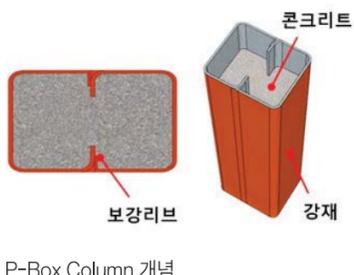
# 포스코, 합성기둥 공법 녹색기술 인증 획득

## 포스코이앤씨와 공동개발 이산화탄소 배출량 47% 감축

포스코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P-Box Column)에 대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총괄) 외 7개의 부처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하여 제작하는 합성기둥으로,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효과에 의해 압축강도를 2배 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P-Box Column 개념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되어 기술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은 공법으로, 이번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우수성 뿐만 아니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임을 입증 받았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을 적용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기둥(Reinforced Concrete Column) 대비 ▲폐기물량 약 53%, ▲폐기물 처리비용 약 59%,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47%를 각각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

관을 통해 확인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공법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간에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대체하여 더샵 천호 센트럴시티 외 3개 현장(강재 약 1900톤)에 시공했으며, 건축 분야 뿐만 아니라 플랜트, 인프라 등 타 분야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 정부가 추진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저탄소 공법 개발 및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전반에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건축구조공법 분야에서 최초로 녹색기술을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사의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최근 GM이 주최한 ‘제 31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매틱스 분야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돼 기념패를 수상하고 있다.

## LG전자, GM ‘최우수 공급사’ 선정

### 인포테인먼트·텔레매틱스 분야 물류난 속에서도 적기 공급 노력

LG전자가 GM 최우수 공급사로 인정 받았다.

LG전자는 최근 GM이 주최한 ‘제31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매틱스 분야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GM은 매년 공급사 성과를 평가해 기술 혁신성과 품질 우수성 등 사업 성과에 기여한 회사를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하고 포상해왔다.

LG전자는 상품 경쟁력은 물론 물류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기에 공급하며 위기 극복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GM와 상하이 합작사인 상하이GM에서도 올해의 우수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는 6번에 걸쳐 GM 올해의 공급사에 선정된 바 있다. 2014년 처음 시작해 2016년과 2022년 ‘오버드라이브 상’을 2017년과 2020년에는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GM에 텔레매틱스 모듈을 공급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2016년 쉐보레 볼트EV에 핵심부품 11종 공급, 캐딜락에 ‘디지털 콕핏’ 공급 등 혁신차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사람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인 소프트웨어 기반 HMI 솔루션을 완성차 업체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혁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사업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터너라운드 성공한 바 있다. 축적된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80조 원을 상회하며 지속 확대 중이다.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부사장은 “GM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첨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올해의 공급사를 축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GM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최우수 협력사로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가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다시 나는 이스타항공, 김포~제주 첫날 전편 만석 운항

### 3년 만에 상업 운항 재개 한정판 굿즈 제작·선물

이스타항공이 3월 26일 오전 6시 5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ZE205편을 시작으로 3년 만의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첫 편인 205편은 오전 7시 10분 경 김포공항을 이륙해 약 1시간 뒤인 8시 10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며 “운항 첫날인 이날 205편을 시작으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총 20편 전편이 26일 오전 기준 만석으로 판매 기간이 짧았음에도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6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전 편 탑승객에게 재운항을 기념해 제작한 한정판 굿즈를 선물로 증정한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하는 209편에는 이스타항공 조종석 대표와 경영진이 탑승 게이트를 찾아 승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타항공은 26일 하루 동안 총 12편의 가내 이벤트 편을 편성해 가내에서 승무원과 탑승객들이 간단한 게임과 이벤트를 즐기며 재운항을 축하한다. 이벤트 편은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 50

분에 출발하는 209편을 시작으로 211, 213, 217, 221, 223편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210, 214, 216, 220, 222, 224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편성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 26부터 28일까지 김포와 제주를 하루 10회 왕복 운항하고 29일부터는 하루 12회로 운항편을 늘린다. 하루 12회 왕복 시 주당 168편을 운항하게 되며 주당 총 3만1752석의 좌석이 공급된다. 이어 4호기 도입 후 추가로 김포-제주 노선을 주당 186편까지 늘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한한령 풀리나’ 韓게임, 中 판호발급 잇따라… “방심 금물”

3개월 만에 쿠키런 등 3종 허가  
중국 게임시장 규모 세계 1·2위  
성향도 한국과 비슷… 흥행 기대  
업계 “국산 게임 수출 개방 전망”  
한편으론 “불확실·위험성 있어”

중국정부가 최근 3개월 만에 한국 게임 3종에 판호를 발급한 가운데 한한령 해지 완화 조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지난해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한국게임사들은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국가신문출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게임 3종(▲넥슨게임즈 ‘블루아카이브’ ▲데브시스터즈 ‘쿠키런:킹덤’ ▲넥슨 ‘메이플스토리’)을 대상으로 판호를 발급했다.

한한령이 시행한 2018년 이후 1년 6



최근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킹덤’과 넥슨 ‘메이플스토리’.



/각사

개월만에 지난해 말 한국 게임 7종(▲넥슨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 ‘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엔픽셀 ‘그랑사가’)에 대한 판호를 발급한 뒤 3개월 만의 허가기 때문이다.

2022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2659억 위안(한화 약 49조 6400억원)으로 미국게임시

장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한화 약 35조3200억원으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다. 게임 이용자수는 청소년 세대 등으로 전년 대비 0.33% 하락했지만 6억 6400만 명이다.

여기에 중국은 게임 이용자 성향도 한국과 비슷해 ‘한국에서 성한 게임은 중국에서도 성공한다’는 업계 후문도 있었다.

이에 게임업계는 중국당국이 조만간 국산 게임에 대한 수출을 개방 할 것이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네오리진과 MOU를 체결했다. 당국 내 원활한 게임 유통을 위해서다. 이같은 판호발급 이후 게임주기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발급된 것을 미루어 향후 추가 발급도 예상해 볼만 하다”며 “아직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게임들까지 고려하면 게임주 전체

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최신작에 대한 판호 발급이 불확실 하는 것 ▲최근 진출자들이 중국시장에서 고전한 사례 ▲신사업 집중 등이 주 이유다. 반면,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확실하게 열리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사들이 적극 움직일 수 없을 것. 신사업, 신작품 등의 중요 안건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진출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리스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중국의 이번 판호 허가는 의미 있게 봐야 한다. 중국 게임시장이 감소했다더라도 인구, 경제력 등 매력적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중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삼성스토어, 가전 양판 업계 1위 우뚝

지난해 매출액 3조4463억원 기록  
하이마트는 사상 처음 적자 전환  
LG전자 하이프라자도 바짝 추격

삼성스토어(옛 디지털프라자)가 결국 가전 양판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판매는 지난해 매출액 3조 4463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3조3368억원)를 넘어선 수치다. 2021년에는 3조7892억원으로 롯데하이마트(3조8697억원)에 약간 못미쳤다가, 결국은 역전에 성공했다.

경제 위기 속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벌어졌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처음 적자로 전환, 규모도 52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판매는 127억원 적자로, 전년(영업손실 21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지긴 했지만 하이마트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삼성전자판매만이 아니다. LG전자 베스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프라자도 하이마트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삼성스토어 대치점.

2021년 매출액이 2조9540억원, 지난해 시장 침체로 3조원을 넘지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치냉장고 탑재를 주력으로 하는 위니아그룹의 유통사 위니아에이드도 지난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마트는 국내 가전 유통 부문 부동의 1위였다. 1987년 설립돼 빠르게 성장하며 전국 391개 직영 점포와 14개 물

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 가전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성장했다.

삼성전자판매가 하이마트를 넘어선 이유는 국내 가전 소비 성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심비’를 따라 특정 브랜드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 판매량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직영점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자급제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가전 업계도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D2C’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혼수나 이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큰폭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소비자를 모으려는 노력도 시작했다. 삼성전자판매는 최근 디지털프라자를 삼성 스토어로 이름 바꾸고 체험형 매장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LG전자 하이프라자 역시 베스트샵 무인화와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재용기자 juk@



LG AI 해커톤 참가자들.

## LG, 실무 데이터로 겨루는 ‘AI 해커톤’ 개최

지난해부터 LG 에이머스 연계 운영 수상 3개팀에 입사 지원 시 서류 면제

LG가 청년 AI 전문가 육성 노력을 이어갔다.

LG는 25일과 2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AI 해커톤’을 개최했다.

LG AI 해커톤은 산업 현장에서 겪을 만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2020년부터 시작해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LG 에이머스와 연계 운영 중이다. LG에이머스는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육성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형 ESG 지원사업’으로, 19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제공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LG AI 해커톤에 참가한다.

올해 LG AI 해커톤은 ‘스마트 팩토리의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품 품질 분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실제 LG 스마트팩토리 현장 데이터를 통해 참가자들에 실무역량을 쌓고 진로 선택과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LG는 ‘LG AI 해커톤’에 앞서 1월 한 달간 국내 최고 AI 전문가 7인의 핵심 이론 강의를 수강하며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

해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본선에 오른 청년들은 1박 2일 동안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예선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는 경합을 벌였다. LG는 대회 종료 후 제출된 코드를 심사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며, 4월 초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LG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원장상) 등 최종 수상 3개 팀에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최종 수상팀을 포함해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장학금 및 상금 총 6000여만 원을 수여한다.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LG AI연구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병행했다. ‘채용 박람회’에서는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함께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 풀(pool) 등록 기회가 주어졌다.

LG 관계자는 “LG 에이머스는 이론과 함께 해커톤을 통한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예비 전문가 과정”이라며,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 KT, “공중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으로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오는 7월부터는 비상벨 설치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비상벨의 설치 및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T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자다. KT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 이태원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7년간 전국 210개 공공기관 등의 공중화장실 약 6000여 개소에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을 적용해 강력 범죄를 예방해오고 있다.

KT 세이프메이트 범죄예방 솔루션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상벨을 누르는 것은 물론 긴급한 상황으로 누를 수 없을 때도 비명소리와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등 구조요청 발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 SK텔레콤

### ‘AI는 어디에나 있다’

SK텔레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SKT의 AI를 소개하기 위한 신규 기업 브랜딩 광고 캠페인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를 런칭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영상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중인 AI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AI 컴퍼니(AI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해 SKT의 5대 영역 ▲고객·기술 ▲시공간(모빌리티/메타버스) ▲산업(AIX) ▲Core BM ▲ESG에 AI를 접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채윤정기자

**BH** Since 1996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안내**

-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 **무점포·무자본 창업**
-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 30년 역사 햅터그룹

**BH** 대한홍삼 [주]  **브레인TV**  (주) 햅터라이프 (주) 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 증권사 토큰증권 협의체 구축 쏟아진다... 경쟁 혜택 기대

금융당국 올 상반기 개정안 제출  
한국투자 ST 프렌즈 첫 번째 사례  
유진투자증권·SK증권·KMAX도  
해양자산 STO 발행 사업 공동 추진  
수익성 높진 않지만 혁신성 분명



한국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결성했다. /한국투자증권

증권사들이 토큰증권(STO)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잇따라 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TO의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말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퉀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다. 이 협의체는 한국투자

증권을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첫 번째 사례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국해양자산거래(KMAX)와 해양자산 관련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해운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확보할 때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마트컨테이너, 항

만 운영권 등 다양한 해양자산에 대한 STO 발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KMAX는 친환경 해양자산 소싱과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을 맡고, SK증권은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신탁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전담한다.

KB증권도 지난 8일 스타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등 STO 관련 사업자들과 'ST 오너스'를 구성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기업 간 협의체인 'STO 비전그룹'을 출범했다. STO 비전그룹은 NH투자증권과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저러(명품), 그리너리(탄소배출권),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 한국기업평가 등 8개사가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6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토큰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대신증권은 조각투자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STO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15일 디지털 수익 증권 거래소 '카사'를 인수했다. 카사는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이번 인수로 대신증권은 증권·금융과 부동산 사업 간의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도 부동산과 미술품 등 조각투자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도하에서는 거래량이 일정 이상 올라 오기 전까지는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1~2년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의 혁신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 외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 2차전지株 에코프로 3형제 쏠림... 코스닥 상승 견인

시가총액 387兆로 증가  
최근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전문가들 "단기 현상일 뿐"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8.96% 오른 데 비해 코스닥지수는 22.72% 상승했다. 이같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는 이른바 에코프로 3형제(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에도 5.41% 오르는 등 연초 이후 지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장 중 한때 824.20을 기록해 지난해 8월 19일(827.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315조4987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현재 386조8952억원으로 71조3965억원 늘어났다.

최근 코스닥 거래대금도 코스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5거래일 연속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3일 코스닥 거래대금 규모는 17조9411억원으로 작년과 올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이보다 거래대금이 많았던 날은 지난해 1월 17일(당시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20조 5488억원) 단 하루뿐이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의 강세현상은 개인 매수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는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3조2128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달에는 2조5087억원어치를 순매

수했다.

증권업계는 코스닥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림 원인으로 코스닥 시장 내 2차전지 소재주들의 급격한 주가 상승을 꼽았다. 국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42.72%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은 152.99% 올랐다. 이달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8129억원을, 에코프로비엠 5392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에코프로 3형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은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일부 사이즈 큰 종목들이 아웃라이어

(예외)성 지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라며 "지수는 강보합이었는데 유독 하락한 종목 수가 상당히 많거나,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도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많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의 특징은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2차전지 등 일부 분야로의 수급 쏠림 심화"라며 "통화정책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조적 성장 및 정책 수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종으로의 단기 쏠림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정 수익 구간이 지나면 통상 대안을 찾는 것이 경험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 분양 캘린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조감도. /두산건설

## 전국 7개 단지서 총 6658가구 분양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658가구(일반분양 419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경분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에 우암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총 30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203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우암·대연 재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약 1만2000여 가구의 신형주거타운을 형성 예정이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휘경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 서울 집값 하락폭 6주째 축소... 매수심리는 3주째 상승

전주 대비 0.15% 하락 0.01%p ↓  
강북구 -0.26%서 -0.20%  
강서구 -0.37%서 -0.34%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경기 침체 둔화 등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계기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상승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16%)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6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26%→-0.20%)가 미아·우이동, 도봉구(-0.29%→-0.24%)는 도봉·쌍문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37%→-0.34%)가 가양·염창·화곡동, 금천구(-0.37%→-0.31%)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0.01%→0.00%)가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강동구(-0.02%→0.00%)는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해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하락 반전한 송파구(-0.01%→-0.06%)는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

폭이 큰 급매물은 소진되고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0일 기준)는 69.3로 전주(68.4)보다 0.9p 상승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3주째 올랐다.

/김대환기자 kdh@

# “배터리 안전시험 세계 최초… 전기차, 바다 빠져도 무사해”

## 프로

### KATRI 안전 테스트 현장 방문

충돌시험에 연간 예산 절반 넘게 써 배터리 낙하·과충전·압착 시험 등 국제 표준보다 2단계 추가 운영 189억원 가상환경재현시설도 조성

“한국 도로는 안전하다.”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배터리 시험실 담당자는 자신있게 말했다. KATRI 배터리 안전 시험이 전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했고, 더 철저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중국에서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KATRI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으로, 자동차와 부품, 건설 기계 등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와 KNC APO로 불리는 안전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 리콜 요소를 찾아 조치하는 것도 KATRI 몫이다. 민관과 함께 미래차와 관련한 안전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국내 도로 안전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KATRI가 충돌시험동에서 아우디 e-트론 후방충돌 시험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KATRI

KATRI를 찾았다. 간척지 한가운데 조성돼 다소 외딴 곳에 위치해있지만, 드넓은 부지에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이 빼곡하게 지고 있었다.

충돌시험은 KATRI 주요 과업 중 하나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을 구매해 다양한 방법으로 충돌을 재현, 충격 정도와 화재 가능성 등을 파악해 평가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날 시험은 전기차인 아우디 e트론을 1805kg 장비를 사용해 48km 속도로 후방 충돌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함이다. 연구원들은 파괴된 차량에 전극을 연결하고 사고 후 배터리 전류가 누설되는지 여부, 배터리 전해질 누출이나 안전성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시험에 사용한 차량은 1년여간 보관하고 있다. 추후 이의제기 등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에는 폐기 처분으로 매각하면서 일부 비용을 회수한다.

배터리 낙하 시험은 KATRI가 자랑하는 전기차 시대 안전 테스트 항목이

다. 실제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4.9m 허공에서 낙하시킨다. 국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부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특성상 과속 방지턱 등에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ATRI는 그 밖에도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고온이나 연소, 단락과 과충전 및 압착과 충격까지 12개 단계 시험을 운영 중이다. 국제 표준인 10개에서 2개를 추가한 것. 그 중 하나인 바닷물 침수 시험을 통과한 덕분에 기아 EV6가 최근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KATRI는 실제 주행 환경을 똑같이 재현하는 설비도 대거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상환경재현시설은 189억원이나 들여 2022년에서 조성한 최신 설비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시간당 최대 30mm 강우와 시정거리 30m 수준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KATRI의 자율주행 안전 평가 시스템은 더 완벽해졌다. 자율주행차가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티어링휠을 놓아도 되는 자율주행3단계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쓰

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KATRI는 시내 도로 상황을 재현해놓은 케이시티와 AEBS 시연 등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 설비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자율 긴급 제동 장치, AEBS 시연은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차량 모양 더미를 놓고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시험. 앞으로 자전거와 사람 인식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여전히 적지 않은 차가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밖에도 고속 주회로는 KATRI에서 가장 큰 시설로, 국내에서도 최대 규모, 고속 주회로 성능 핵심인 뱅크 최대 기울기도 가장 크다. 전체 길이가 5040m에 뱅크 기울기가 42도로, 최근에 지어진 한국타이어 타이어랩보다 앞선다.

예산 부족은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차량 구매 비용이 올라가는데다가 자동차 전자화 확대도 검사 항목도 대폭 증가했지만,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 대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난해 리콜이 67건으로 전년(42대) 대비 대폭 성장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juk@metroseoul.co.kr

# 선수금 2배 늘 때 홀로 17배 성장… 상조회사 선두 위협

## KYO WON 교원라이프

2011년 후발주자로 상조업 시작 작년 9월 기준 9129억원으로 3위

가입 시 공정위 등록 유무 확인 주소·연락처 바뀌면 반드시 통보

교원그룹 계열인 교원라이프가 후발주자에도 불구하고 누적 선수금 규모가 1조원에 바짝 다가서며 ‘톱(TOP) 3’에 올라서는 등 상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입자와 선수금 증가세가 시장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르며 선두그룹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조회사라고도 불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2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기준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원, 가입자는 757만명으로 파악됐다. 9월 당시 조사에서 74곳이던 상조회사는 4·4분기 사이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고, 한효라이프가 폐업하면서 2곳이 줄었다.

이 가운데 선수금 규모가 9129억원인 교원라이프는 업계 3위에 올랐다. ‘선수금’이란 상조 가입고객들이 매달 내는 돈을 말한다.

선수금이 1조원을 넘는 곳은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 1조8019억원, 대명소노그룹 계열인 대명스테이션 1조243억원이 유일하다.

보람상조개발(4451억원), 보람재향상조(3502억원), 보람상조라이프(3073억원), 보람상조피플(2047억원) 등의 계열을 두고 있는 보람그룹도 이들을 모두 합치면 총 선수금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대형사로 선수금이 몰리는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업체 숫자는 44개사로 이들 기업의 총 선수금은 전체의 99.1%인 7조8239억원에 달한다. 반면 100억원 미만인 28개사는 전체의 0.9%(735억원)를 나눠 먹는 실정이다. 특히 후발주자로 2011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교원라이프는 2016년 당시 516억원에 그쳤던 선수금이 지난해 9월 까지 무려 17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조사들의 총 선수금은 3조9290억원에서 2배 넘게 증가한 정도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상조상품의 경우 고객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가입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필요할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교원라이프는 고객들의 선수금을 제1금융권에 있는 4개 금융기관과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

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원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은 101%, 부채비율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7곳의 직영 장례문화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핵가족화 등으로 상조상품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이라면 우선 해당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등록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찾으면 된다.

이미 가입한 고객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조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시 은행 등 선수금보전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LX하우시스

### 한명호 대표 재선임 “미래성장동력 구축”



한명호 사장이 LX하우시스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했다.

2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사에서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명호 대표이사(사진)를 재선임했다.

한명호 대표는 지난 2009년 LX하우시스(당시 LG하우시스)가 LG화학에서 분할·설립될 때 초대 대표로 취임해 2012년까지 회사의 성장을 진두지휘한 후 10년 만에 다시 LX하우시스를 이끌게 됐다.

재임기간 동안 한 대표는 건축용 고성능 PF단열재, 완성창, 고단열 로이유리, 친환경 건축자재 지아(ZEA) 시리즈 등 신사업 육성을 주도하며 미래성장 사업들이 현재 LX하우시스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2012년말 퇴임 이후에도 관련 업계에 꾸준히 몸담아 왔으며 이러한 국내 건축자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의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LX하우시스가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대표는 “올해 국내 주택시장 위축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위기상황 속에서 LX하우시스는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재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X하우시스는 또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CFO 박장수 전무를 새로 선임했다. /김승호기자

## HJNC,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

부산항운노동조합과 국내 중 최초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이 부산항운노동조합과 함께 국내 항만사 중 최초로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26일 한진에 따르면 HJNC는 지난해 5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부산항운노동조합과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4일 H

JNC 관제센터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작업자용 스마트 안전 솔루션은 작업자가 착용한 스마트 밴드가 작업자의 위치, 건강상태, 작업환경을 모니터링 센터로 실시간 전달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또 선박 작업 사항(Stowage Plan)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개발한 앱(App)이 탑재된 LTE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 상황 공유와 종이 없는 환경 구축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기자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김승호기자

# 친환경 포장기술·고령자 식단 등 푸드테크 분야 11.2억 투입

농식품부, 신규 연구개발 4개 선정  
총 51개 기관 평균 12.7대 1 경쟁률  
과제 심사엔 투자전문가 참여 평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친환경 포장기술 등 민간 주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과제 4건을 선정해 2년간 1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간편식 생산기술, 식품 프린팅 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민간 주도 연구개발과 범부처 차원

의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민간주도 연구개발 과제, 기초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1~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단계' 2개와 최근 3년간 총 2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2개 과제로, 자유주제로 공모했다.

과제 공모기간 중 총 51개 기관이 응모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제 심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투자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개발 후 산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했다.

아이디어 단계 선정 2개 과제는 ▲김치 포장재 절감을 위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적용 포장재 개발 ▲곡물 발아에 사용된 폐배지 재활용(업사이클링)기술이며, 2년간 각각 1억8700만원이 지원된다.

김치 포장재 개발 과제는 기존 포장재가 김치 부피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흡수제 대신 하이드로겔 형태 성분을 개발해 포장재에 도포하는 새로운 포장재 기술을 개

발하는 것으로, 식품포장재 전문기업 류림과 연세대가 공동 연구한다.

그간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다량의 곡물 발아 배지를 기능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지 성분을 분석해 식품소재로 개발하는 곡물 발아 폐배지 재활용 기술 개발 과제는 곡류 가공소재기업 에이치엔에이치그룹이 과제를 수행한다.

투자연계형 2개 과제는 ▲식물 단백질 건식 분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고령자의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로, 2년간 각 3억7300만원이 지원된다.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 개발 과제는 기존의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인 습식이나 화학적 처리과정의 단점인 기능과 맛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식

물성 대체식품 제조로 유명한 스타트업 더플랜잇이 과제를 수행한다. 고령자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과제는 고령자의 저작능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 저작 및 연하능력에 따른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강의료기기 전문기업 큐라움과 식품기업 아워홈, 연세대 등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수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1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에는 산업화를 앞둔 확장(스케일업)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기술 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인도 '공장심사 지연' 등 韓 기업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218건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많아

정부가 인도의 공장심사 지연 등 우리 기업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기술규제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며, 각국은 비관세 장벽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해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표원은 TBT 통보문 218건을 조사·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하고, 인도(5건), 중동(2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2건,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해 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업 애로 내용은 품질인증,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이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특히,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해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로 해소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국가 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또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하기로 해 약 355억원 규모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의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과 관련, 예외조항을 추가해 업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BT통보문은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했으며, 분야별로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많았고,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전체의 39.2%(11건)의 비중으로 많았다. 통보문의 목적은 '보건과 안전'(51건, 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25건, 11.4%), '기반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섬진강댐 '농업용수' 4700만t 대체 공급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섬진강댐에 농업용수 약 4700만t이 대체 공급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하는 농업용수 중 약 4700만t을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 등으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하천, 농업용 저수지, 부암댐 등에서 용수를 확보해 동진강 유역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으로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약 1개월 가량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를 뜻한다. 용수 확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밀·콩 재배 농가 '전략작물직불금' 연장

신청 기간 내달 20일까지 지원  
참여 기회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

논에 밀이나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31일에서 4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늘린 이유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등록업무가 중첩돼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며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제도다. 전략작물은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등을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헥타르(ha)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오은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중소 개방형 혁신 활동·기술 이전 지원

플랫폼 전자계약 최초 시연

기술보증기금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이전 추가 지원에 나섰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KIMST 본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 및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무상기술이전과 관련해 플랫폼으로 첫 전자계약도 시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플랫폼 정보 연계(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KIMST의 '오션테크 트레이드')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방안 마련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사업 등 공동마케팅 추진 ▲플랫폼 참여기업과 기관에 대한 공동 홍보 등을 추진키로 하고 해양수산분야 우수 국가R&D 성과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제고를 위

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식에선 기보와 KIMST가 공동으로 중개한 '공공기술 무료나눔 기술이전'과 관련해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동장치'에 관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으로 무료 이전하는 계약으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시스템이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사업'의 주요 계약 수단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 체결한 전자계약이다.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인증과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점확인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회원가입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형 기술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소 지방소멸 대응위한 지자체 모집

중진공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26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해 과제를 수행할 지자체 총 13곳을 모집한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중진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기업에게 정책자금·수출·기술사업화 등을 이어달리 기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이며, 접수기한은 오는 4월14일까지다.

/김승호 기자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궁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불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고삐... 투자기업 최대 200억 특별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30일부터 시행  
부지확보 애로·투자 불균형 해소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신설



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홍보 이미지.

경남도는 과격적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은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 원으로 늘렸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은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기업투자촉진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을 추가했다.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도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주차장 사유지 공유 개방사업

울산시는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예산 규모는 3억 7000만 원이며, 우선 순위 평가와 최종 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주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 구미시 청렴·자체감사 2년 연속 '우수'

구미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시(市) 단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경북도가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자체감사활동(50%), 반부패 청렴활동(50%) 등 2개 분야 19개 지표의 실적을 심사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33개 기관·부서 대상 자체감사를 실시해 2억 2400만원의 회수조치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 광주, '특별지자체' 본격화 미래 호남권 발전 전망도

행안부,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선정  
지방소멸 대응 등 광역사무 기대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이다.

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와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머리를 맞출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 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활동.

### 전남도 농·공산품 '201만달러' 수출계약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이끈 시장개척단에는 도내 농수산물 기업 9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중소기업 15개 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829만 달러 수출 상담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김 전문 기업(㈜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선 광어족, 전복죽 생산기업(㈜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기업(㈜디엠티가)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대구,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통합' 확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대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의 교통복지를 확대한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한다.

대구는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다.

/대구=김상복 기자

이 사업은 흥준표 대구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실시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구지역은 도시철도(3개 노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8%)보다 시내버스(119개 노선, 수송 분담률 18%)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은 도시철도만 가능해 사실상 도시철도 1~3호선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경북도 '2023 SNS 서포터즈' 발대식

문화·관광 등 뉴미디어 홍보

경북도가 24일 '2023년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경북 SNS 서포터즈는 2014년 시작해 올해 10년째다.

이들은 정책,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주요 도정 현장과 행사를 도민의 시각으로 취재해 뉴미디어로 홍보한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활약으로 경북 공식블로그에 취재 기사 콘텐츠 약 3200건이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총 950만 회를 기록해 효과가 입증됐다.

올해 SNS 서포터즈는 여행 인플루

언서, 작가, 유튜버, 귀농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452명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영상 서포터즈 20명도 함께 운영한다. SNS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관광 및 지역 명소, 정책 현장 등을 취재한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취재 및 콘텐츠 제작에 따른 원고료를 지원하고 1년간 가장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특별 포상을 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상복 ksb8100@

### 광양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와 시,군이 교육, 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16개 시군에서 25개 사업을 신청해, 12개 시군에서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영덕군 '세종사무소 개소' 국비 확보

영덕군이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영덕군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난 2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영덕군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김광열 영덕군수의 주도 아래 내부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이에 국가사업에 대한 이해와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20일 2차례 개최해 2024년 국·도비 지원 사업 3606억 원을 건의하고 347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 봄 나들이 패션 반값에... 스포츠·리빙·웨딩 등 혜택 풍성

## 백화점 봄 정기세일

롯데 '그린 브리즈' 행사  
35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신세계 '신백페스타'  
웨딩 상품 구매시 상품권 증정  
현대 '더현대 혜택 마스터'  
리조트 이용권 추첨 이벤트

백화점들이 일제히 봄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봄은 여느 때보다도 외출 수요가 높아 패션, 레저 등 외출복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많아 벌써 패션 장르 매출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패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다. 특히 스포츠와 아웃도어 매출이 각 30% 이상 올랐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이번 봄 할인행사에 특히 스포츠 상품군에 혜택을 안배하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그린 브리즈'를 테마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총 3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



본점 매장에서 봄 의류를 구경하는 고객들의 모습. /롯데백화점

행한다. 패션뿐 아니라 잡화, 리빙 상품군까지 모두 1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말마다 상품군별로 구매금액에 따른 상품권 증정도 진행한다.

패션만큼 매출 상승세가 높은 뷰티 상품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2개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 '럭셔리 뷰티 페스타'를 열고 단독 기획세트 등을 판매한다.

특히 스포츠 상품군에서는 젊은 고객 취향에 맞춘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다음달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하는 푸마 팝업스토어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러닝(Running)

을 콘셉트로 꾸몄다. 롯데월드몰에서는 라인프렌즈x스노우피크가 감성 캠핑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를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이승희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장은 "이번 행사는 '노마스크'와 예년보다 이른 개화 소식으로 설레일 나들이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대규모 쇼핑축제 '신백페스타'를 연다. 전장르 카드 사은 행사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다. 본격적인 웨딩 시즌인 만큼 예비 신



신세계는 3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신백페스타'를 개최한다. /신세계

혼부부를 겨냥한 리빙, 워치 주얼리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가전, 베딩, 테이블·키친웨어, 워치주얼리 장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금액대에 맞춰 5%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 바이어가 엄선한 2만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 판매도 진행한다.

프로야구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랜더스데이'를 기념한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새 신신고 떠나는야구장'이라는 주제로 선보이는 기획전에서는 나이키, 컨버스 등 인기 신발을 특가로 만날 수 있다.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다. SSG랜더스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일정 수를 추첨해 인천문학경기장의 백화점 전용 스카이박스 관람권과 오크우

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봄철 인테리어 수요도 높은 점을 고려해 영국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와 이탈리아 디자인 기업 비앤비의 컬래버 팝업 스토어도 연다. 강남점 9층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며, 르방블레 소파의 신규캡슐 컬렉션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 16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통합 온라인몰에서 '더현대 혜택 마스터'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참여브랜드에서 신상품 구매시 10% 사은 혜택을 제공하며 리조트 이용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7일에는 현대백화점카드 회원 대상 최대 10% 추가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최대 20%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현대백화점카드 모바일앱에서 추첨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리조트 '아만(Aman)' 300만원 금액이용권과 온라인 여행 플랫폼 '더현대드래블' 항공 200만원 이용권(1명), 숙박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 50만원 금액 이용권(3명) 등을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사옥 모티브 '뉴 뷰티 랜드' 오픈

## 메타버스 패션워크 파트너 참여 디센트럴랜드에 3개 테마 구성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28일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용산 사옥을 모티브로 한 '뉴 뷰티 랜드'를 오픈한다.

2023 메타버스 패션워크(MVFW)의 공식 파트너로서 참여해 선보이는 이번 론칭에서 굴지의 글로벌 패션·뷰티 기업들과 함께 웹3(Web3) 기반의 새로운 가상 공간을 선보인다.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된 뉴 뷰티 랜드는 아모레퍼시픽의 비전인 '리브 유어 뉴 뷰티'의 가치를 담아 가상 공간에서 고객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층 팝업 공간은 포토존과 뉴 뷰티 퀘



'디센트럴랜드 뉴 뷰티 랜드' 홍보이미지 /아모레퍼시픽

스트 등을 즐길 수 있고 2층에서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 NFT 뮤지엄이 있는 3층에서는 이번 론칭을 맞아 사전 진행된 '컬러스 오브 뉴 뷰

티' 공모전에서 수상한 12개의 NFT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공간 체험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발행하는 NFT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BGF리테일

### 5개 직군 신입사원 공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다음달 5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3년 8월)이며,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인원도 지원 가능하다.

상반기 채용 인원은 00명으로 ▲영업관리 ▲전략기획(마케팅, 신사업) ▲상품운영 ▲재경지원 ▲전문(IT, 물류, 시설, 디자인) 5개 직군에 걸쳐 선발한다. 채용은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현장 실습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 이연에프엔씨, '태블로' 등 IT솔루션 도입

##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

종합식품기업 이연에프엔씨가 본사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연에프엔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인 RPA(업무자동화)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시스템 '태블로' 등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태블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그래프, 그림 등 지표로 시각화해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툴이다.

이연에프엔씨는 태블로를 통해 매장 매출은 물론 매장과 배달 운영지표, 경쟁점 현황, 고객리뷰 및 평점 등의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경영 정보를 빠르게 확인,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침이다.

여기에 RPA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A는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선정하면 자료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연에프엔씨는 매장의 매출과 배달 현황, 온라인 판매채널 분석, 고객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 운영에 활용한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 마케팅 강화

## 신규광고, SNS 캠페인 등 진행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9월 중순 첫선을 보인 '처음처럼 새로'가 신규 광고 및 SNS 캠페인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배우 이도현과 함께한 '처음처럼 새로' 티징 광고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남자 새로구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본편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남자 새로구미 캐릭터가 '처음처럼 새로'의 광고 모델이 된 콘셉트로 진행했으며 남자 새로구미 캐

릭터의 목소리를 배우 이도현이 연기했다.

새로구미는 전래동화 등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이는 구미호를 현대적인 감성을 녹인 '처음처럼 새로'의 브랜드 앰배서더로, 여러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구미호 캐릭터 특색을 살려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또 새로운 다양한 광고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 17일부터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는 유명 틱톡커들과 대세 소주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매력을 통해 새로운 알리기 위한 영상을 업로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스타벅스

### 제주 특화상품 한정 판매

스타벅스코리아는 제주 특화 음료 2종과 푸드 3종을 제주도 지역이 아닌 서울과 남양주, 양평, 대구 등에 위치한 7개 매장에서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신규 음료인 '제주 말차 & 애플망고 블렌디드(사진)'와 기존 인기 음료인 '제주 비자림 콜드 브루' 등 음료 2종을 비롯해 '새콤롬 한라봉 크림 케이크', '따뜻 버터 치즈 케이크', '제주 당근 산도롱 샌드위치' 등 제주 신규 푸드 3종을 7개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확대 판매를 기념해 28일부터 7개 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베어리스타 키체인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 세븐일레븐

### 봄맞이 디저트 연속 출시

세븐일레븐은 29일까지 딸기, 바나나, 우유 생크림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낸 디저트 6종을 연속으로 출시한다.

29일 출시하는 상품은 '뽕뽕도넛바나나카라멜'과 '설목장우유카스테라샌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주 '뽕뽕도넛딸기생크림', '설목장우유생크림', '바나나원래야향다미니롤', '바나나원래야향다케이크'를 선보인 바 있다.

뽕뽕도넛바나나카라멜은 뽕뽕한 도넛과 달콤한 카라멜향이 더해진 바나나 생크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앞서 출시한 뽕뽕도넛딸기생크림과 함께 일러스트 브랜드 '뽕뽕 스튜디오' 컬래버 상품이다.

설목장우유 시리즈는 대관령에 위치한 설목장 우유로 만든 생크림을 아낌없이 담은 상품들이다. /김서현 기자

# “파리지앵 되어보세요”... 프랑스 감성 옮겨온 ‘이자벨마랑’

## 팝업 산책

LF, 내달 7일까지 신상품 홍보 2023 S/S ‘오스칸 문 백’ 라인 새롭게 힙한 것 선호하는 MZ 맞춰 포토부스·롤렛 게임 등 즐길거리 ↑

누구나 한 번쯤 동경했던 프랑스 파리의 파리지앵들의 패션 감성이 청담동에 찾아왔다.

생활문화기업 LF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프랑스 보헤미안 럭셔리 브랜드 ‘이자벨마랑(ISABEL MARANT)’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2023년 S/S에 론칭한 ‘오스칸 문 백’ 라인을 집중 조명한다.

‘오스칸 문 백’은 이사벨마랑이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 공개한 신규 가방 라인으로, 지난 6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됐다. 90년대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 매력적인 반달 모양의 스타일과 메탈릭한 스티드 장식으로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팝업 스토어는 고객들에게 아직 생소



방문객 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또한 신상품을 각인하도록 의도했다.

한 오스칸 문 백을 소개하고 감성과 철학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꾸몄다.

외부 파사드에는 대형 오스칸 문 백을 드로잉하고 창에는 오스칸 문 백의 3가지 컬러를 진열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신상품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내부 공간 또한 이사벨마랑이 전하는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재현하는 데 충실해 여느 팝업스토어보다도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풍경)하다. 프랑스 파리 거리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키오스크와 카운터에

12가지의 다채로운 신상품 컬러와 오스칸 문 백 모양으로 형상화한 색색의 풍선들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의도했다.

전시뿐 아니라 즐길거리도 많다. 패셔너블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는 물론, 액티비티 존에서는 오스칸 문 백 모양의 타투스티커와 이바벨마랑 양말, 로고 풍선 등을 증정하는 롤렛 게임 등도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 기획을 담당할 박유정 LF 수입1BPU 부장은 “새롭고 힙한 것을 선호하는 MZ세대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색다르게 경험하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프랑스 파리의 노천 카페가 주는 감성이 느껴진다.

/LF

고 SNS에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로 공간을 감성 있게 꾸민 것이 이번 팝업의 특징”이라며 “단순 신제품 홍보를 넘어 고객들이 브랜드를 체감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놀다 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F에 따르면 이번 이사벨마랑 팝업스토어는 엔데믹(풍토화)를 맞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 보다 높은 데 힘입어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팝업스토어 개점 첫 주인 15일부터 21일까지 기간 동안 이번 시즌 가방 장르 매출이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특히 오스칸 문 백의 매출은 전 주 대비 2배 이상(130%) 늘었다.

한편, 이사벨마랑은 1994년 프랑스 디자이너 이사벨 마랑이 론칭한 프렌치 시크를 지향하는 패션 브랜드다. 현대적이고 절제된 실루엣에 파리지앵의 감성을 가미한 패션을 선보인다. 특히 트트백, 엔키, 레더 슬라우치 백, 뉴웨이, 헬비 등 가방과 산티아고 웨스턴 부츠, 롤리엣, 롱부츠 댄비 등 신발에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제약업계, 제약바이오 육성 방안 기대감 ↑

제약 주권 확립 가능할 것 평가 효율·구체적 실행방안 촉구도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제약 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2개와 글로벌 50위 안에 드는 대형 신약 3개를 배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소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 최소 3곳이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81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160억 달러로 약 2배 확대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일자리는 2021년 12만 개에서 2027년 누적 15만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블록버스터 신약 10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민·관 연구개발(R&D) 총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

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계획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협회는 “이번 종합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국제약, ‘판시딜’ 탈모치료제 5년연속 1위

제25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탈모 치료제 동국제약 ‘판시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3년도 제25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결과에서 소비자 산업군 ‘탈모치료제’ 부문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9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평가 모델이다. 전국 1만 2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거쳐 산업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판시딜은 전년보다 5% 상승한 브랜드파워 지수(K-BPI) 787.9점(1000점

만점 중)을 획득했으며, 2위 브랜드와는 380점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 항목 모두 높은 점수로 우위를 나타냈다. 특히 최초 인지도가 73.4%로 전년 대비 24%나 상승해 2위, 3위 브랜드와 큰 차이를 보였다.

K-BPI 세부 항목별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판시딜이 일반의약품 경구용 탈모치료제 중 9년 연속 판매 1위(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선택 받은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

## SK플라즈마, 5월에 인니 혈액제 공장 건설

자카르타 인근 2025년 완공

SK플라즈마가 오는 5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 2025년 완공되면 연간 100만 리터 규모의 혈액제제 생산이 가능해 인도네시아 자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회사측에 따르면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지난 24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칸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 행사

에서 인도네시아 혈액제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선언서를 발표했다.

김 대표와 인도네시아 제약사 대우인 피온 안드리안토 데르나트라 이사는 공동 선언서를 발표하며 SK플라즈마의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받았다.

사디칸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력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3자가 꾸준히 노력한 결

실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양국 모두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SK플라즈마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며, SK플라즈마는 오는 5월 착공하여 2025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연간 100만 리터의 혈장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혈액제제 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이 완공되면 SK플라즈마는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혈액제제 제조·설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는 제약 분야 자급화에 한걸음 다가갈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 유한양행, ‘프리미엄 유산균’ 라인업 강화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유한양행이 명품 유산균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약국 전용 프리미엄 유산균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미엄 장건강 유산균으로 유산균 전문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한센의 세계 특허 균주의 국내 최초 배합 유산균이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LGG 균주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F-19 균주의 국내 최초 배합으로, 하루 한 알로 1일 100억 CFU(집락형성단위)를 보장한다.

크리스찬한센의 특허 균주 LGG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산균 균주 중 하나로, 30년 이상 1000여편의 논

문과 200편 이상의 인체적용시험이 되어 신생아, 영유아부터 임산부, 노인에게도 안전성을 입증받은 유산균 균주이다. 특히 LGG는 우수한 장 정착력과 생존력으로 장 점막 내벽에 강력하게 부착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특허 균주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F-19 균주는 장 내 세균총의 균형을 조절해서 장건강뿐만 아니라 면역건강에 도움을 준다.

유한양행의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프리미엄 특수용기를 활용, 유산균을 습도와 빛에 안전하게 하며, 하루 한알 공복에 간편하게, 초소형 캡슐을 섭취하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LOTTERIA 

촉촉한  
반숙 계란

고소한 참기름  
풍미를 더한  
고추장 소스

한정  
판매

한국의 맛을 버거에 그대로 담았다!

전주비빔  
라이스버거

단품 6,900원 세트 8,800원



**NH금융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 60억 전달**

NH금융은행이 경상북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NH금융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발급재원으로 출연금 60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석용 NH금융은행 은행장이 출연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금융은행



**SK주유소, '2023년 K-BPI' 주유소 부문 1위**

SK주유소가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주유소 부문에서 17년 연속 1위에 오르며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했다. 전국 약 3천여개 주유소 네트워크를 갖춘 SK주유소는 국내 최초의 정유사 SK에너지가 60년간 이끌어온 국내 석유유통 시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SK



**여경협, 여성기업 30곳 판로개척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023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상품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여성기업 10곳에 공영홍소포 입점을 위한 방송 수수료를 지원하고 20곳에 SNS광고영상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경협



**프랜차이즈산업협회, 3월 식품위생교육 성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중소 외식 가맹본부 재직자의 가맹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3월 식품위생교육을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봄을 맞아 외식소비 회복에 대비해 철저한 불철 식품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인사**

◆새만금개발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정인권

**부음**

▲강정자씨 별세, 진영웅씨 배우자상, 진상균(주)진영 대표·진소정·진철(사업)씨 모친상, 임승환(YTN라디오센터장)씨 장모상=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8일 오전 9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신세계공원묘원. 02-2258-5922  
▲정기홍(경남신문 전 편집국장)씨 별세, 김기덕씨 남편상, 정서령씨 부친상 =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30분. 055-225-1200

**최정우 회장, '2022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포스코그룹〉

지주사 전환 등 뛰어난 능력 발휘 최 회장 "지속가능 미래 구현 기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협상학회에서 주는 '2022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받았다.

26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한국협상학회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2022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자로 최정우 회장을 선정했다.

한국협상학회는 지난 1996년부터 국내외에서 뛰어난 협상능력을 발휘해 국가 이익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자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3월 그룹의 균형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협상대상 시상식'에서 협상대상을 수상한 후 권성우 한국협상학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Agri-Bio) 등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학회는 최 회장이 상생을 도모하는 윈윈 협상력을 발휘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 공개**

**시민들 15개 언어 환영... "부산, 엑스포 최적 공간"**

부산 시민들이 직접 부산 소개 "글로벌 영상 등 홍보활동 지속"

현대자동차그룹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쓴 총력전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6일 부산 시민들이 15개 언어로 부산의 역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2030 부산엑스포' 알리기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부산 시민들이 직접 출연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주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5개 회원국 언어로 부산의 강력한 개최 의지와 역량을 소개하는 영상 '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를 공개했다. 또 개별 BIE 회원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회원국 언어로만 제작된 1분 분량의 숏폼 영



현대차그룹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 메인 화면으로 영상에 출연한 부산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상 16편도 동시에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부산 시민들이 유창한 발음은 아니지만 BIE 회원국 언어로 직접 부산을 소개하는 것이 해당국에게 친근감과 진심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별 BIE 회원국 언어로만 제작된 숏폼영상의 경우 부산 시민이 부산과 해당국 간 문화와 역사, 관광, 산업 등의 공통점을 소개하는 등

**포스코퓨처엠, GM 우수 협력사 선정**

'오버드라이브상' 수상

포스코퓨처엠이 GM의 우수 협력사에 선정됐다.

포스코퓨처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GM의 '제31회 올해의 공급사' 행사에서 '오버드라이브상(Overdrive Award)'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버드라이브상'은 GM이 매년 '올해의 공급사' 행사를 열면서 전 세계 협력사 중 지속가능성, 혁신, 관계 증진 등 탁월한 성과를 보인 회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포스코퓨처엠은 GM과 함께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캡'을 설립하고, 대규모 양극재·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GM의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 강화에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프 모리슨 GM 구매 담당 부사



GM 삼 쿤주르 전무(왼쪽부터), 포스코퓨처엠 박준영 해외마케팅그룹장, 얼티엄캡 차차규 법인장, GM 프라브조트 나누아 전무, GM 아니르반 쿠메르 전무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GM의 '제31회 올해의 공급사'에서 '오버드라이브상'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은 "포스코퓨처엠은 GM과 함께 북미에서 양극재 현지화에 기여하는 등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2년 5월 배터

리 소재사 최초로 자동차사와의 합작사인 '얼티엄캡'을 GM과 공동 설립했다. 연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2024년 완공할 예정으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조 389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공급할 계획이다. 합작사를 통한 공급 외에도 포스코퓨처엠은 '얼티엄셀즈'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양에서 생산하는 총 13조 7696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9393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도 포함해서 생산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포스코퓨처엠과 GM은 미국, 유럽 등 권역별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에 양극재 공장 증설과 함께 중간 원료인 전구체 공장 신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양사는 양·음극재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코웨이 5년 연속 '그랑골드' 획득**

코웨이의 아이콘 정수기2(사진)가한 국국제소물리에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정수기·생수 물맛 품평회'에서 정수기 부문 최고 등급인 그랑골드(Grand Gold)를 획득했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블 정수기에 이어 올해 물맛 품평회에선 아이콘 정수기2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최고 물맛 정수기로 인정받았다.

이번 정수기 물맛 품평회에서 국가대표 워터소물리에 출신 심사위원 5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국내 정수기 제품들의 물맛을 비교 평가했다. 심사 결과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2가 그랑골드 등급을 받으며 최고 물맛 정수기에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bada@

# 회사 도산해도 임금·퇴직금 돌려받을 수 있다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회사는 도산절차(회생, 파산)를 검토하게 된다. 도산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도산절차를 신청한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회사의 재산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 적다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

되면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제1호, 제2호)에는 법원이 공익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 자체가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 등 참조).

한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때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지급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미지급 임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해당금 지급 이후 지급된 금액 상단에 대한 채

권자로서 도산절차에 참여해 이를 변제받게 된다. 도산절차에 들어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따라서 사업주로서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되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속히 도산절차를 신청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동요가 커지고 퇴사자가 속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바, 원칙적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부터 전문가와 도산절차를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금지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대응이 되기도 하므로,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가호호 근심과 가난이 없어지면 좋겠다. 48년생 사랑이 평생 없는 것도 자신 탓. 60년생 문화센터에 가서 한문 쓰는 공부를 해본다. 7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84년생 내일이 오늘보다 발전되도록 공부해야.



37년생 과거의 사랑이 아름답다 해도 이미 지나간 일. 49년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이 저승보다 비할 바 없다. 61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재혼에 도전. 73년생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 85년생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준비를.



38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50년생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 신중하. 62년생 약간의 먹구름 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74년생 장기 투자는 신중히 고려. 86년생 직장 다니면서도 교육투자는 계속.



39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51년생 자식에게 주기보다는 주택연금을 생각해보자. 63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75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87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40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2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64년생 투자에는 어느 분야든 인내가 따라야 할 것. 76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88년생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다고 다시 돌아오겠는가.



41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5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7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 89년생 저축한 돈으로 차보다는 집 살 것을 계획하는 것이.



42년생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5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66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 나간다. 78년생 꿈을 이를 계기가 온다. 90년생 무겁게 잡긴 성문도 작은 열쇠 하나면 쉽게 열리니 문제해결책은 있다.



43년생 이시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5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67년생 투자에서 모수를 찾지 말고 인내심으로 항방을. 79년생 가름에 비 오듯이 순식간에 해결. 91년생 버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44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56년생 남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자녀에게 소통시키도록. 68년생 비밀 언덕이 필요하다. 8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92년생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해보자.



45년생 당신의 발등을 찍는 것은 당신의 도끼. 5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69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81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야. 93년생 어디를 가든 대립관계를 만들지 말고 실리적으로 중재.



46년생 매매수가 있으니 오후에 이루어진다. 58년생 금리가 높으니 생활비가 적어 지는데 단기투자를 해볼까. 7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잠잠할 수 없이 커진다. 82년생 거래를 잘 살펴야 한다. 94년생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47년생 자식이 노후의 보장이 될 수가 없을 것인데. 59년생 중도포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 71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8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으니 마음을 접어라. 95년생 친구 개업 집에 즐겁게 갈 일.

# 순이삼촌이 쓰러진 제주에 걸린 왜곡 현수막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현기영은 소설 '순이삼촌(1978년작)'으로 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린 소설가다. 4·3 사건으로 군경에 의해 남편과 쌍둥이 자식을 잃은 순이삼촌(제주도에선 먼 친척을 남녀 구분 없이 삼촌으로 부르는 풍습이 있다)의 생애를 조명하며 4·3의 비극을 알렸다.

순이삼촌은 4·3 이후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평생 일군 제주의 옴팡밭에서 음독해 목숨을 잃는다. 현기영 소설가는 이 소설의 발표 이후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가 3일간 고문을 받는다. 기록도 발설도 금지시되던 4·3 사건은 사건 발생 약 40년이 지난 1989년 민주화

이후 첫 공식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2000년에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2003년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대표해 4·3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지정 추념일로 정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이 걸려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극우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있다.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최고위원 선거를 앞뒀던 태영호 의원은 해당 언동으로 정치권·시민사회에 질타를 받으며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미군정의 친일 관료·경찰 등용,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 및 총과업 돌입, 서북청년단의 입도와 도민을 향한 테러행위, 제주도 전역을 향한 토벌대와 무장대의 양민 학살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제주의 맥락을 제거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주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상생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 이를 돕지 못할 망정, 무의미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pth7285@metroseoul.co.kr



# 김상희의四季 무조선

무속(巫俗)을 표현한다면 무부(巫夫) 및 무녀(巫女)의 풍속을 말한다. 신계(神界) 神界 瀟瀟에 실린 신령스런 내용을 적어본다. 무속(巫俗) 관련 전설 설화 신화 사실에 근거한 얘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무조를 여성으로 삼고 있으며 신분(身分)이 고귀(高貴)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류해보면 성모(聖母)전설; 지리산의 성모(聖母) 聖母 天王을 무조로 한다. 왕녀(王女) 전설; 중국의 제녀(帝女) 또는 조선의 왕녀(王女)를 무조로 한다. 귀녀(貴女) 전설; 귀족의 여성을 무조로 한다. 왕무(王母) 전설; 무녀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무사(巫事)를 시작(始)했다고 하는 전설이다.

이렇게 네 종류로 전해지는데 성모(聖母) 聖母 天王은 저자 불명의 무녀(巫女) 속고(巫俗)라 칭하는 사본에 "신라(新羅) 중(中) 함양(咸陽)의 범우(凡友) 화상(和相)에게 딸(女) 여덟(八) 명이 있었는데 각기 여덟(八) 지역으로 파견(派)되어 무업(巫業)을 행했다... 중(中)략(略) 지리산(智異山) 고엄(高嚴) 천사(天師)에 범우(凡友) 화상(和相)이 어느 날 문득 산골짜기(山峽)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溪流)을 바라보니 비(雨)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沸)었다. 그 흘러온 물줄기(流水)를 찾아 천왕(天王) 봉(峰) 고대(高臺)기에 이르니 키(身)가 크고 힘이 센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성모(聖母) 聖母 天王이라 이르(呼)고(고려(高麗)시대 박전(朴全)의 용암(龍巖) 사중수(四重壽) 壽重(壽重)에서 성모(聖母) 聖母 天王은 곧 지리산(智異山) 신(神)이니...) 인간(人間) 세상에 귀양(歸陽)을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대(君)와 인연(緣)이 있으므로 수술(手術)을 적용( 적용)하여 스스로 중매(中媒)했다고 했다. 마침내 부부(夫婦)가 되어 살면서 딸(女) 여덟(八)을 낳았고 자손(子孫)이 많이 퍼졌다. 모두 무술(巫術)을 가르쳤는데 금방(金方)울과 부채(부채)를 들고 춤(舞)을 추면서 아미타(阿彌陀)불(佛)을 외우(誦)고 무업(巫業)을 행했다. 이 때문에 세속(世俗)에서는 큰무당(큰 무당)은 반드시 지리산(智異山)에 가서 성모(聖母) 聖母 天王에게 기도(祈)해서 접신(接神)한다고 한다. 성모(聖母) 聖母 天王은 곧 지리산(智異山) 신(神)이다. 이러한 점(點)을 보면 조선(朝鮮)시대의 제자(제자)들도 신(神)의 여신(女神)에 대한 신앙(信仰)은 오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신출판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3	4		7		6	1
1	2		6		4	8
					1	
9			5			4
	3					
5	7			3		9
6	8		2		5	7

		8				5
	4		8			2
2				7		8
		6				7
				5		
	7				3	
6			5			3
	8			6		1
		7			4	

정답

4	9	8	7	2	6	1	8	9
9	6	7	8	1	2	4	5	3
2	8	1	9	9	2	8	6	7
6	4	9	9	1	8	7	8	2
7	2	8	2	9	8	9	1	6
8	1	9	2	6	7	4	5	8
9	8	6	1	7	2	8	9	4
8	7	4	6	8	9	9	2	1
1	9	2	8	4	9	6	7	8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일상회복에 다시 부는 사교육 바람... 심야교습 3.5배 증가

지난해 서울 심야교습 145건 적발  
사교육 총액 26조 돌파... 역대 최고  
소득구간별 격차 벌어져 양극화 우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첫 3월 전국학력연합평가를 이틀 앞둔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교육 바람이 다시 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는 잠잠했던 불법 심야 교습도 성행하는 모습이다.

26일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그러들었던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그전년도 41건보다 3.5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원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한 모습이다. 실제로 학원 강사 A씨는 "수강생이 늘다보니 증원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추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고공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 4000억원보다도 10.8% 증가한 규모이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이르렀는데 올바른 교육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점검 및

장치 마련이 절실히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구간별 격차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나눠 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12만4000원으로 약소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64.8만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으로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도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학교 경쟁 속에서 밀려나 취업도 외곽으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보면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경쟁 구도와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열등 국민처럼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건강 적신호' 청년층 식생활 자립 돕는다

불균형한 식사로 청년 건강 적신호  
서울시, 식생활 능력 향상 지원사업

서울시가 청년들의 식생활 자립에 팔을 걷어붙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을 벌인다.

시는 "젊은층은 먹거리 소비 변화로 배달·포장 등 간편식 이용률이 높고, 식생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작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에 의하면, 일주일간 배달·포장 음식 이용 횟수는 20~30대가 1.7회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1.3회였으며, 40대는 1.4회, 50대는 1.1회, 60대는 0.8회, 70대는 0.6회로 집계됐다.

일주일간 편의점 이용횟수 역시

2030세대가 0.75회로 가장 빈번했다. 전체 평균은 0.4회였으며, 40대 0.3회, 50대 0.2회, 60대와 70대는 각 0.1회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리 능력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20~30대는 60.4점을 기록해 꼴찌를 차지했다. 40대의 식생활 관리 능력이 64.9점으로 가장 우수했고, 50대 62.8점, 70대 62점, 60대 61점으로 뒤를 이었다.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해 청년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배달 등 간편식은 열량이 높고 당·나트륨 섭취를 증가시켜 20~30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1년 비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비만인 2030세대의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은 5.9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1.7배 높았다. 또 청년층 비만 유병률은 20대는 2009년 18.5%에서 2019년 28.9%로

10.4%포인트, 같은 기간 30대는 32.2%에서 39.6%로 7.4%포인트 급증했다.

시는 청년층의 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해 식생활 지식의 활용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식생활 습관 등 영양 지수를 사전에 평가한다. 이어 시는 ▲균형 잡힌 식생활 중요성, 식단 점검 및 올바른 식단 구성 ▲식재료 선택·손질·보관·처리법, 기본적인 조리법, 주방도구 사용법 ▲올바른 간편식 선택·활용법 ▲식생활 능력 향상 실천 확인 및 건강한 식단공유를 골자로 하는 식생활 능력 향상 교육을 월 4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식단 작성하기, 간단한 아침 만들기, 간편식을 활용해 참치 미역국 만들기, 작은 홈파티 음식 만들기 같은 실습을 병행한다. /김현정 기자 hjk10

## 한옥마을서 결혼식을... 서울 공공시설 개방

서울시, 시청사·공원 등 19곳 개방  
저렴한 대관료, 웨딩 맞춤상담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로 미뤄왔던 결혼식 수요 급증으로 결혼식장 예약난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시청사,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예약장으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과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한강공원을 포함해 19개 공공시설을 신규 개방하기로 했다. 한방진흥센터, 성북예향채,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다.

결혼식은 4월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예식 가능 일자는 장소마다 다르다.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는 일반 예식장 대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운영된다. 광나루 장미원



서울시 공공예식장 북서울꿈의숲. /서울시

등은 무료이고, 웬만한 곳들은 2만~50만원 선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복잡한 결혼식 준비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일대일 맞춤상담과 플래닝을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결혼전문업체 4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스토리(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얼마 정도인지, 결혼식 준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웨딩 콘셉트를 어떻게 실현할지 등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38곳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경기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138곳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지역이나 노

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설치·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의정부정보도서관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우려지역 51곳에 보행환경 개선 ▲수원 남행궁경로당, 과천장애인복지관 인근 등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다발·우려 지역 74곳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수원여자고등학교 앞, 성남성일중고앞사거리 등 기타 보행환경 개선 13곳 등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50억 규모 7% 할인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2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다.

시민들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 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총 5개 앱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 100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6 | 해질 / 18:50

3월 27일(월)  
음력: 2월 6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5/15, 동두천 -4/15, 가평 -2/15, 파주 -4/14, 서울 2/14, 양평 -3/16, 인천 3/11, 수원 2/13, 용인 2/13, 평택 -3/15

백령도 3/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온두라스 "대만과 단교"...대만 수교국 13개 남아 /사진 뉴스시  
▲트럼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년 대선 대규모 유세

▲우크라전 395일, 바흐무트 공방전 소강상태 접어들어  
▲中, 양쯔강 어족 보호위해 희귀어 20만 마리 방사



▲美 펜실베이니아 초콜릿 공장 폭발... 5명 사망·6명 실종  
▲시리아 내 미군 친 이란 시설 보복 공습으로 19명 사망 /사진 뉴스시



[경제종합]  
또 오르는 치킨값  
'서민음식' 옛말  
가성비 찾아 마트 간다  
04



Life

[라이프]  
백화점  
봄맞이 할인행사  
혜택 풍성  
니



# “행정-경영 선진인재 배출... 혁신 위한 ‘공공정책’ 펼쳐야”

## 듀얼 인터뷰

유종일 KDI 대학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가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있다. 메트로경제는 언론사 최초로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활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듀얼 인터뷰’를 시도했다.

작년 연말 유 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국가정책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정부와 국회 여러 분들을 만나 ‘국가정책원’ 설립 관련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양한 정책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어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세종시에 발을 두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활용해 ‘국가정책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으로 변모하면 새로운 정책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명실공히 정책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책원은 한국 공공 부문 정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설립 목표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자체 이사회가 없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지만, 규제는 여타 국책연구기관들과 똑같이 적용된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부속기관이란 한계와 함께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국가정책원은 향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국가경영대학원, 복수대학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 정책학 석사와 더불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

KDI, ‘국가정책원’으로 도약 준비  
정책중심 교육기관으로 인재 양성  
정책학 석사·MBA 동시 취득 가능  
AI시대, 역량중심·책임 교육 필요

제경제 등 이론적 정책 분야를 실질적 관리(Management)와 접목해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국제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행정-경영 분야 선진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평가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챗GPT(ChatGPT)’가 열풍을 넘어 광풍 흐름을 보이면서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3억 명, 월간활성 사용자수(MAU)는 1억 명을 달성했다. 챗GPT란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거리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진위 여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들이 상충해 서다. 챗GPT의 활용과 악용이란 갈림길에서 유 원장은 ‘활용’을 택했다.

유 원장은 “챗GPT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함양을 시사했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보급됐을 때도 비슷한 사회적 대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키워드로 역량중심 교육과 책임 교육을 꼽았다. 그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닌 문해력, 수리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를 거쳐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정책 자문을 했다. 2019년 발표한 ‘전환적 뉴딜’ 보고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거름으로 평가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 등이 있다.

등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역량 테스트에 있어서도 학교가 아닌 나라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고, 졸업하게 되는 교육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학업적인 부분을 넘어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까지도 살피는 촘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과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책 혁신’, 도대체 무엇인가?

“혁신이라면 보통 신기술, 신산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야 한다. 국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데이터에 입각한 엄밀한 현실분석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게 ‘증거기반 정책’이고, 선진 혁신경제의 기초다.”

-증거기반 정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은 곧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국민경제와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되나?

혁신 경제 위해 ‘경영혁신’ 중요  
데이터 바탕 창의적 정책 나와야

인구감소에 개방적 이민정책도 방법  
물가상승, 취약층 지원으로 풀어야

“코로나19는 우리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 줬다. 재난지원이나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소득을 비롯해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빅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됐다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거다. 데이터 경제라는 게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 모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고도화하고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 0.78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인 만큼 인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2050년에 인구 40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직결되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되나?

“인구 문제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일자리는 데이터경제와 혁신경제로, 교육은 역량중심교육과 책임교육, 그리고 부동산

은 시장 원리와 일관된 금융 규제, 서민주거복지로 풀어나가면 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게 금방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해법이 간절하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재정 완화보다 긴축이 필요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악순환 구조다. 현명한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국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 만큼 난제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은 가능한 자제하고, 재정도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물가 통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풀어나가야 한다.”

끝으로 유 원장은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평온을 비는 기도(Serenity prayer)’로 주님을 신으로 번역한 유 원장만의 해석이 돋보였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신하는 기자 godhe@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소속팀 전술 손흥민 ‘족쇄’ 클린스만 이 풀었다 /사진 뉴시스  
▲과제 산적한 한국야구... 끊이지 않는 선수들의 이탈

▲모드리치, 사우디 이적설에 “아니라고 100번 말했다”  
▲유해란 “LPGA 첫 챔피언조... 신인 된 심정으로 치겠다”



▲이승엽 감독, 친정 삼성과 첫 만남서 패배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서준원 방출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은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설유치원 및 돌봄교실 2,265개를  
전국에 신설 또는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더 오랜 시간까지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가 문을 엽니다

“밤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KB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부모님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방학기간까지 돌봄 시간이 확대된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KB 금융그룹**